우리 전통 음식문화 알리는 뜻깊은 자리

울산불교종단聯, 제 10회 전통음식문화한마당

10월 22일 울산 해남사서 개최해
해남사, 소외이웃 위한 쌀 전달식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산옹)가 10월 22일 울산 해남사 경내에서 '제10회 전통음식문화한마당' 을 봉행했다.

전통음식문화한마당은 사찰음식 및 한국 전통의 식(食)문화 그리고 선(禪)문화를 함께 보여주는 지역대표 축제이다. 축제에는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산옹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월봉사 보화스님, 정토사 덕진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성불사 혜안스님,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삼귀의 △반야심경 △인사말 △봉행사 △내빈소개 △축사△백미 전달식 △사홍서원 △커팅식 △전통음식 전시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산옹 스님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문화의 뿌리를 찾고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로 준비했다"며 "우리 사찰음식을 전통 사기그릇에 담아 보여주고 한국 전통문화의 오랜 아름다움과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전통의 뿌리를 찾아보고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남사 주지 혜원 스님은 "전통과 사찰문화의 맥을 잇겠다는 목표로 10년 동안 이어온 행사이다"며 "울산의 산과 들에서 나오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울산지역 대표 장인들의 작품으로 음식과 꽃을 담았다. 울산의 얼과 정신을 함께 담아낸 축제이다. 함께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은 "음식은 곧 사람의 정신과 생활을 대표한다. 사찰음식은 전통의 문화를 잇고 생명을 사랑하는 불교정신이 담겨있다"며 "오늘 이 축제는 생명의 가치를 담은 음식문화를 보여주는 뜻깊은 문화행사이다"고 말했다.

전통음식문화한마당에서는 전통사찰요리 50여 개가 선보였으며 참가자에게 사찰음식 도시락이 제공됐다. 아울러 명천 스님의 선(禪) 꽃꽂이 작품과 신용균, 왕방요 사기장, 신현웅 도예가 등 지역 대표 도예가의 도자기 화병을 감상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가 10월22일 울산해남사 경내서 '제10회 전통음식문화한마당' 을 봉행했다.

전통음식문화한마당에서 선보인 음식은 〈산가요록(山家要錄)〉과 〈주방문(酒方文)〉에 나오는 음식기록을 근거로 사찰채식요리에 대입해 새로운 음식 문화를 보여줬다. 〈산가요록〉은 1400년대 왕실 어의 전순의가 지었다고 전해지며 현존하는 한국 최초의 농서이자 조리서이다. 〈주방문〉은 1600년대 말 무명의 선비가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 한글 요리서이다. 음식은 명천 스님과 법보향 요리연구가가 동참했다. 명천 스님은 산사 승원 음식과 불화, 불교 복식에 이르기까지 불교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매진하고 있으며 법보향 요리연구가는 30여 년 동안 사찰음식을 주제로 활동해왔다.

한편, 해남사는 이날 지역민을 위한 사랑의 백미 전달식을 진행했다. 백미는 박태환 중구청장에 전달됐으며, 10kg 200포 총 2000kg이다. 백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외 이웃에게 회향될 예정이다.

김해 동림선원, 범종 · 금고 봉안

10월 23일, 3층 대법당서



김해시 장유 동림선원(주지 신공)이 10월 23일 3층 대법당에서 '범종 · 금고 봉안 점안식' 을 개최했다.〈사진〉

법회에서 지안 스님은 "범종의 소리를 생명의 소리라고 한다. 범종은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고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는 소리이다"며 "범종과 금고 불사에 동참한 모든 대중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불사 공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승한 불제자로 성장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신공 스님은 "동림선원을 개원한 지 4년에 접어들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어려웠던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불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동참으로 범종과 금고를 봉안하게 되어 감사인사를 올린다"며 "예불 때마다 종과 금고를 울려 육도중생이 소리를 듣고 번뇌를 씻어 이고득락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림선원은 법회 후 학술연구지원 후원금 500만 원을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안 스님에게 전달하고 연구발전을 기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3회 통도사 영축문학상 시상식

10월 22일, 통도사 해장보각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10월 22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제3회 영축문학상 시상식' 을 봉행했다.〈사진〉

영축문학상은 전국의 문인들이 통도사를 주제로 시, 수필, 소설, 시조 등 작품을 기고하며, 올해는 147명의 작가가 동참해 총 277편의 작품이 모였다.

시상식에는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과 정영자 영축문학회 회장, 김선아 (사)부산여성문학인협회 이사장, 김일권 양산시장 등이 동참했다.

이번 해는 수상자는 권혁모 - '산문(山門)이 그리운 날' (시조), 김향자 - '통도사 월영교를 건너며' (시), 문영길 - '통도사 대웅전에서' (시), 차정연 - '통도사 템플스테이' (수필)이다. 영축시낭송상은 이숙례 시인 받았다. 통도사는 영축문학상 수상자들에게 부상으로 상금 500만 원, 시낭송상은 200만 원을 각각 수여했다.

방장 성파 스님은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며 "문학인들의 작품에 담긴 정신이 바로 문화의 힘이고 정신문화를 잇는 힘이 된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아미타대불 개금불사 회향

개산 18주년 기념, 10월 24일 대적광전서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10월 24일 경내에서 아미타대불 개금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사진〉

개산18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행사에서 홍법사는 국내 최대 좌불로 알려진 아미타대불 개금불사 회향을 알리고 전법 의지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개금불사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증명했으며 법회에는 주지 심산 스님, 정오 스님, 양재생 홍법사 신도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백종헌 국회의원, 정미영 금정구청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법문을 통해 "개금불사는 부처님의 법의를 마련해 입히는 것과 같다"며 "부처님은 금빛 가사를 공양 받아 조각내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가사를 조각내어 나누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공덕을 짓고 불제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18주년을 맞아 진행한 개금불사이며 이 불사로 말미암아 신행을 좀 더 승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개금불사는 부처님께 새로운 옷을 입혀드린다는 의미이다. 새롭게 조성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법사는 2002년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첫 법회를 봉행했으며 2003년 홍법사 개원과 동시에 대웅전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삼존불을 봉안했다. 2010년 개산7주년을 맞아 아미타대불 점안식을 봉행하고 이번 해 아미타대불 개금불사를 진행했다.

아미타대불은 높이가 21m이고 좌대까지 포함하면 총 45m이다. 개금불사 기간은 총 21일이며 참여대중은 아미타경 108번 독송 및 금박붙이기, 아미타경 사경 등으로 수행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홍법사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잔디마당에서 '부산서화 108인 초대전' 을 진행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주불교회관 개관 28주년 초청법회

송광사 현묵 스님 초청 법문

(사)진주불교회관(이사장 홍수승)은 10월 23일 진주불교회관 3층 대법당에서 개관 28주년 기념 초청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행사는 송광사 수련원장이자 전국선원 수좌회 대표를 역임한 현묵 스님 초청 특별법회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진주불교회관 지도법사 지현 스님, 무료급식 보현의집 지도법사 옥천사 청련암 원명스님, 홍수승 진주불교회관 이사장, 황재웅 가야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김동영 진주불교 거사림회 회장, 박해덕 경남포교사단 단장 등이 동참했다.

행사는 내빈 소개 및 연혁소개, 홍수승 이사장 인사말 등이 이어졌으며 아울러 경남포교사단에 나눔의 밥차 행사를 위한 포교성금을 전달했다.

현묵 스님은 〈금강경〉과 참선을 주제로 한 법문에서 "〈금강경〉은 조계종 소의경전으로 수행 지침서이다"며 "〈금강경〉의 핵심은 무주상보시, 육바라밀이다. 공덕의 행을 강조하는 종교와 사상을 초월한 해탈의 가르침이다"고 강조했다.

홍수승 이사장은 "진주불교회관이 문을 연 지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한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성년의 나이를 훨씬 넘은 나이이다"며 "가야불교대학 학장스님이신 보선 스님과 수행단체 지도법사님이 함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진주불교회관이 있을 수 있었다. 28주년을 맞아 감사인사를 올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불교발전을 위해 단체들과 협력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진주불교회관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주불교회관은 1993년 3월 15일 개관했다. 이후 재가 불자 교육 및 포교를 위해 활동했으며 보현의집 무료급식, 카페 보리수 다문화가정 바리스타 교육, 불교합창제, 가야불교대학 비대면 수업 등 다양한 활동 및 수행을 통해 불자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명사, 어린이 위한 다도 명상

10월 23일, 경내 거북바위서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10월 23일 경내 거북바위 마당에서 유치원 원아와 함께하는 '다도 명상 프로그램' 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다도 명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차 한 잔과 자연에서 얻는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다. 다도 명상에는 주지 춘광 스님과 광명사 자모다도회, 광명사 유치원생 및 학부모가 동참했다. 주지 춘광 스님의 좌종 소리에 맞춰 원생들은 명상을 시작했고 이어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차를 준비해 원생들에게 차를 대접했다. 차를 마신 원생들은 어머니와 선생님에게 차를 직접 내려 공양 올렸다.

주지 춘광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광명사 유치원 어린이들이 그동안 실내에서만 활동하고 학습을 했다. 그동안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 마련한 행사이다"며 "오늘 다도 명상은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도록 돕는 지혜의 장이 되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 · 동물 · 식물 · 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광증 있으신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